

#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과의 관련성

한승희<sup>1)</sup>

## Correlations of Ego Resilience and Self Efficacy in Pre-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Seung-Hee Han<sup>1)</sup>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4년대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임상실습 전 2학년 학생 230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검정, ANOVA, Scheffe's test,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에 대해 5점 만점에 각각 2.88점, 3.49점의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정적상관계수로 나타났다( $r=.539, p<.001$ ). 또한 대상자의 교우관계, 대인관계, 건강상태,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임상실습 전, 간호학과, 간호대학생,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 resilience and self efficacy of pre-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30 pre-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t 2 universities located in Gwangju, from October 1 to December 30, 20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which determined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nursing students investigated a mean of 2.88 and 3.49 on ego resilience and self esteem.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s among ego resilience and self effica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r=.539, p<.001$ ). The self efficacy and ego resilience was significantly high in those whose were friendship, interpersonal satisfaction, health status, department satisfaction. On basis of these results, in order to pre-clinical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elf efficacy and ego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in extracurricular courses.

Keywords : Pre-Clinical Practice, Nursing department, Nursing Students, Ego Resilience, Self Efficacy

Received (May 12, 2016), Review Result (May 26,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ly 31, 2016)

<sup>1</sup>61743 Dept. Nursing, Gwangju Univ. Hyiduk-Ro, Nam-gu, Gwangju, Korea

email: shhanj@gwangju.ac.kr

\* 이 논문은 2015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1. 서론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실제 간호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1]. 특히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간호 상황에 적용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2] 이러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3].

그러한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환경, 임상실습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과도한 과제, 역할 갈등 및 지식부족,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한계점, 예상치 못하는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5].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가운데 개인의 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7].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8], 자아존중감[9], 자아탄력성[10] 등의 개인의 내적인 특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로 제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로는 임상실습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고[11],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보고[12][13]가 있었으나 임상실습 전에 이러한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사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G광역시 소재한 2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전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조사가 진행되었

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연구자는 각 교실에 들어가 연구목적과 설문 내용 및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전체 25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에서 응답의 성실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응답, 무응답, 미회수 된 설문지는 제외하여 230부(회수율 96%)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4]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og Resilience scale, ER)를 유성경과 심혜원[15]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1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유성경과 심혜원[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 등[1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홍혜영[17]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 6문항이다.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하위요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을 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89.1%가 여성이며 간호학과 선택 동기로 졸업 후 취업률이 43.9%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은 자택이 57.4%, 건강상태는 좋다가 63%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좋다가 49.1%로 답하였고 동아리 활동은 65.2%가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학과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8.7%, 보통이다가 40.4%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0)

특성	범주	n	%
성별	남성	25	10.9
	여성	205	89.1
연령	18-20세	156	67.8
	21세 이상	74	32.2
종교	유	88	38.3
	무	162	61.7
선택 동기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60	26.1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101	43.9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54	23.5
	기타	15	6.5
주거환경	자택	132	57.4
	기숙사	64	27.8
	자취	29	12.6
	하숙	4	1.7
	기타	1	0.4
건강상태	좋다	145	63.0
	보통이다	78	33.9
	나쁘다	7	3.0
학년	2학년	230	100
종교	유	88	38.3
	무	162	61.7
성적	평점2.0이하	6	2.6
	평점2.0-2.9	32	13.9
	평점3.0-3.9	176	76.5

	평점4.0이상	16	7.0
교우관계	좋은 편	111	48.3
	보통	113	49.1
	어려움이 느끼는 편	6	2.6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다	179	77.8
	한다	51	22.2
학과 만족도	만족한다	112	48.7
	보통이다	93	40.4
	만족하지 못 한다	25	10.9
동아리	활동하지 않는다	80	34.8
	활동 한다	150	65.2

### 3.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본 연구대상자 230명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결과는 <표2>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5 점 만점으로 평균 2.88점(±0.56)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대인관계 3.19(±0.39), 호기심 2.76(±0.56), 감정 통제 2.87(±0.52), 활력 2.85(±0.85), 낙관성 2.88(±0.56)점이었다. 이 중에서 대인관계 영역을 나타내는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가 3.23(±0.55), '나는 친구들에게 너그럽다'가 3.23(±0.53),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가 3.23(±0.5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성 영역의 '나는 매일의 생활이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가 2.57(±0.65)점, 호기심 영역의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가 2.63(±0.80)점, 감정통제 영역의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가 2.70(±0.7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Table 2] Pre-clinical of nursing students Ego Resilience

(N=230)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대인관계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3.23(0.55)
	나는 친구들에게 너그럽다.	3.23(0.53)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3.12(0.53)
	대인관계 평균	3.19(0.39)
호기심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3.05(0.87)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2.70(0.69)
	나는 평소에 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2.68(0.75)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2.73(0.72)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2.63(0.80)
호기심 평균	2.76(0.56)	
감정통제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3.04(0.71)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2.70(0.75)
	감정통제 평균	2.87(0.52)
활력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2.79(0.63)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활력 평균	2.90(1.54) 2.85(0.85)
낙관성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나는 매일의 생활이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낙관성 평균	2.92(0.68) 2.57(0.65) 2.75(0.50)
	전체 평균	2.88(0.56)

### 3.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본 연구대상자 230명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으로 평균 3.49점(±0.50)이었고, 하위요인 점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3.40(±0.49), 사회적 자기효능감 3.57(±0.60)이었다.

[표 3] 임상실습 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Table 3] Pre-clinical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N=230)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문항수
일반적 자기효능감	39	80	57.85(8.28)	3.40(0.49)
사회적 자기효능감	15	30	21.43(3.61)	3.57(0.60)

#### 3.3.1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대상자 230명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서술 통계결과는 <표4>과 같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문항 중 역문항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나는 인생에 부딪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가 5점 만점에 3.90(±0.90)로 가장 높았고,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가 2.50(±0.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Table 4] Pre-clinical of nursing students General Self-Efficacy (N=230)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1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3.69(0.76)
2*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56(0.91)
3	어떤 일을 첫 번에 잘못 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3.56(0.79)
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3.79(0.91)
5*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포기한다.	3.57(0.98)
6*	나는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을 피한다.	2.92(1.00)
7*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볼 시도조차 안한다.	3.37(1.02)
8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3.30(0.87)

	반드시 한다.	
9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3.14(0.97)
10*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3.62(1.07)
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잘 대처할 수 없다.	3.48(0.91)
12*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3.62(1.07)
13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이다.	3.48(0.91)
14*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2.50(0.95)
15	나는 자심감이 있다.	3.73(0.84)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3.60(0.91)
17*	나는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3.90(0.90)
일반적 자기효능감 총점		3.40(0.49)

\*는 역문항임

### 3.3.2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대상자 230명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서술 통계결과는 <표5>과 같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문항 중 역문항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것이다'가 5점 만점에 3.84(±0.99)로 가장 높았고, '첫 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가 3.39(±0.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Table 5] Pre-clinical of nursing students Social Self-Efficacy

(N=230)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18*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것이다.	3.84(0.99)
19	나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간다.	3.42(0.98)
20*	나는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는 사귀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	3.57(1.11)
21	첫 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3.39(0.96)
22*	나는 사회적(사교적)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3.53(1.08)
23	나는 지금의 내 친구들을 내 사교성 덕분에 사귀었다.	3.67(0.94)
사회적 자기효능감 총점		3.57(0.60)

\*는 역문항임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표6>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교우관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72, p=.000)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보통인 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2.35, p=.000),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다로 응답한 사람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Table 6] Differences of Ego Resili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특성	범주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성	2.77(0.32)	-1.58	0.116	
	여성	2.89(0.39)			
연령	18-20세	2.90(0.38)	1.34	0.182	
	21세이상	2.83(2.38)			
종교	있음	2.92(0.36)	2.00	0.10	
	없음	2.88(0.11)			
성적	평점2.0이하	2.74(0.31)	0.91	0.44	
	평점2.0-2.9	2.96(0.31)			
	평점3.0-3.9	2.87(0.40)			
	평점4.0이상	2.92(0.22)			
선택동기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85(0.34)	1.68	0.17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2.92(0.45)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2.80(0.28)			
	기타	2.99(0.25)			
교우관계	좋은 편 a	2.77(0.35)	9.72 ***	0.000	a<b
	보통 b	2.98(0.39)			
	어려움이 느끼는 편 c	3.05(0.36)			
주거환경	자택	2.89(0.36)	1.75	0.141	
	기숙사	2.80(0.38)			
	자취	3.02(0.47)			
	하숙	2.79(0.26)			
	기타	3.00(0.30)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다	2.87(0.38)	-1.18	0.241	
	한다	2.93(0.38)			
학과만족	만족하지 못한다	2.93(0.46)	0.94	0.392	
	보통이다	2.90(0.40)			
	만족한다	2.84(0.33)			
동아리	활동하지 않는다	2.85(0.37)	-0.92	0.360	
	활동한다	2.90(0.38)			
대인관계	좋은 편이다 a	2.82(0.35)	4.71	0.10	
	보통이다 b	2.93(0.40)			



	나쁜 편이다 c	3.36(0.00)			
건강상태	좋다 a	2.79(0.32)	12.35	0.000	b>a
	보통이다 b	3.04(0.45)	***		
	나쁘다 c	2.90(0.09)			

\*p<.05, \*\*p<.01, \*\*\*p<.001

###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표7>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2.34, p=.020$ )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8-20세 미만의 학생이 21세 이상의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98, p=.003$ ).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높은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3.40, p=.019$ ). 교우관계에서는 좋은 편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보다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9.88, p=.000$ ). 학과만족도에서는 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F=0.43, p=.000$ ). 또한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나쁘다고 답한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8.50, p=.000$ ). 건강상태가 좋다고 답한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52, p=.005$ ).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7] Differences of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특성	범주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성	3.24(0.41)	-2.34	.020	
	여성	3.47(0.45)	*		
연령	18-20세	3.51(0.45)	2.98	.003	
	21세 이상	3.32(0.42)	**		
종교	있음	3.55(0.45)	2.20	.070	
	없음	3.09(0.32)			
종교	있음	3.55(0.45)	2.20	.070	
	없음	3.09(0.32)			
성적	평점2.0이하	3.58(0.57)	0.90	.440	
	평점2.0-2.9	3.50(0.36)			
	평점3.0-3.9	3.43(0.46)			
	평점4.0이상	3.58(0.40)			
선택 동기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a	3.45(0.43)	3.40	.019	b>c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b	3.52(0.48)	*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c	3.29(0.37)			
	기타 d	3.57(0.45)			
교우관계	좋은 편 a	3.58(0.50)	9.88	.000	a>b

	보통 b 어려움이 느끼는 편 c	3.39(0.22) 3.32(0.36)	***		
주거환경	주택 기숙사 자취 하숙 기타	3.43(0.46) 3.44(0.42) 3.57(0.45) 3.50(0.51) 3.04	0.81	.520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다 한다	3.42(0.43) 3.54(0.50)	-1.60	.110	
학과만족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3.53(0.59) 3.44(0.40) 3.40(0.46)	0.43 ***	.000	a>b
동아리	활동하지 않는다 활동한다	3.42(0.41) 3.47(0.47)	-0.78	.439	
대인관계	좋은 편이다a 보통이다 b 나쁜 편이다 c	3.58(0.51) 3.43(0.00) 3.34(0.36)	8.50	.000	a>b
건강상태	좋다 a 보통이다 b 나쁘다 c	3.58(0.51) 3.39(0.40) 3.21(0.39)	5.52 **	.005	a>b

\*p<.05, \*\*p<.01, \*\*\*p<.001

### 3.6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는 <표8>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하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r=.539, p<.001$ )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

[Table 8] Correlation among Ego Resilience and Self Efficacy pre-clinical of nursing students

	자아탄력성	p
자기효능감	.539	p<.001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광주소재 2개 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평균2.88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덕진[18]의 결과 3.38, 박완주[19]의 결과 3.48의 연구결과에 비해 조금 낮았다. 이는 임상실습 전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낮게 조사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는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활력,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순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완주[19]의 연구에서는 감정통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긍정적인 심념을 유지하는 능력인 낙관성, 새로움을 추구하는 호기심이 좀 더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에서는 교우관계, 건강상태,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자신감이 높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겪게 될 다양한 실습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인관계와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을 높여 임상실습 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개인의 특성과 성격, 자아탄력성을 개선 및 증진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55점이었고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40점이었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57점이었다. 이는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덕진[18]의 연구와 비교할 때(전체 3.33점, 일반적 자기효능감 3.30, 사회적 자기효능감 3.34),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왔으나 간호학과 특성상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많아서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교우관계, 학과만족도,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온 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수행할 때 영향을 받으므로 임상실습 전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후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결과에서 실습 교육 전과 후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서 임상실습 전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타인을 돌보는 능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이 낮아지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회피하려고 하며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21]는 연구결과를 볼 때 임상실습 전 자기효능감을 반복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 실습 전과 후에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공동아리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선진화 병원 탐방 등의 임상실습 전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덕진[18]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N. S. Ha and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5)**, Vol.11, No.1, pp.1-9.
- [2] I. S. Kun, An Analysis of Research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 Vol.32, No.5, pp.706-715.
- [3]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2009)**, Kyungbuk University.
- [4] S. L. Kim and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l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 Vol.11, No.3, pp.98-106.
- [5] Evans, W. and Kelly, B, Pre-registration diploma student nurse stress and coping measures, Nurse Education Today, **(2004)**, Vol.24, No.2, pp.19-228.
- [6] H. J. Park and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 Vol.16, No.1, pp.14-23.
- [7] Y .Y. Nam and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1)**. Vol.17, No.2, pp.216-225.
- [8]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 Vol.12, No.2, pp.205-213.
- [9] S. L. Kim and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5)**, Vol. 11, No.1, pp.98-106.
- [10] M. McAllister and J. McKinnon,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resilience in the health disciplin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2009)**, Vol.29, pp.371-379.
- [11] Y. S. Bong, H. S. So and H. S. You,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9)**, Vol. 15, No. 3, pp. 425-433.
- [12] K. S. Jeong,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2013)**, Vol.19, No. 8, pp.165-183.
- [13] Y. J. Shin and Y. S. Park YS,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2013)**, Vol.14, No.11, pp.5636-5645.
- [14]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 Vol.70, pp.349-361.
- [15] S. Y. Yoo and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2), Vol.16, No.4, pp.189-206.

- [16] M. Sherer, J. E. Maddux, and B. Meracndante, Prentice-Dunn, S., Jacobs, B., and Rogers, Rogers, R. 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 Vol.51, pp.663-671.
- [17]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1995), Ewha University.
- [18]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2013), Hanyang University.
- [19]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9), Vol.18, No.3, pp.240-250.
- [20] M. Y. Jho,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4), Vol. 21, No.3, pp.292-301.
- [21] J. W. Kim and M. J. Yang, The influences of Attachement and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Vol.14, No.2. pp. 283-299.